

“노동부 양산지청, 지게차 불법운영 집중관리한다” 지게차 산재예방 운영계획 수립·실시 (금년도 지게차 용도 외 사용으로 3명 사망)

고용노동부 양산지청(지청장 권구형)은 최근 관내에 지게차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3건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게차 재해를 예방하고 지게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게차 산재예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지게차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 현황

- ① '26.3.4. 지게차 포크에 올라서 도색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
- ② '26.3.31.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
- ③ '26.6.1.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그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

이번에 수립한 지게차 산재 예방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게차 산업 재해예방 강조 기간 운영(6. 23. ~ 7. 31.), 캠페인, 사업주 교육 실시(2회)과 함께 기업별로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(자체 개선 기회 부여) 및 패트롤 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아울러,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게차 산업재해다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.

권구형 지청장은 “강조기간 운영, 캠페인 및 자율점검 등 지게차 산재예방 집중 기간 운영을 통해 관내 지게차 작업에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”고 하면서, “관내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지게차 용도 외 사용 등 위험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, 동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”

담당 부서	산재예방지도과	책임자	과 장	이동규 (055-370-093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최성진 (055-370-0933)